

제 1 교시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과 결과를 ㉠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과 결과에 대한 도덕 법칙, 곧 도덕 기준의 영역에서 칸트와 다른 여러 사상가는 자신들의 윤리학을 설명하며 주장을 펼쳤다.

칸트는 자유의지에서 자유가 일상적 의미의 자유가 아닌, 이성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그렇게 ㉡ 세워진 규칙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 성립된다고 본다. 칸트는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유를 갖지 못하고 충동과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자유의지는 곧 이성적 자율성이고 이러한 이성적 자율성을 가질 때 비로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스스로의 욕망을 배제한 채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세운 규칙을 이행하는 능력을 보유한 인간만이 이성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이성적 자율성을 전제로 정언명령을 제안한다. 정언명령이란 본인이 세운 규칙이 곧 사회 구성원 전체가 따를 수 있는 규칙이 되게 하라는 칸트의 주장을 담은 규칙으로, 칸트에 의하면 조건이나 목적의 변화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도덕적 규칙이며 사회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이다.

칸트는 이러한 본인의 윤리학을 바탕으로 선택과 결과를 도덕적 가치의 관점에서 ㉢ 평가한다. 이성적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정언명령을 통해 선택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며, 선택의 동기가 정언명령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택한 선택이 도덕적으로 어떠한지 판단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칸트에게 결과는 고려되지 않는, 선택에 의한 부산물일 뿐이다.

한편 헤겔은 이러한 칸트의 주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기에 현실적으로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헤겔에 의하면 칸트의 주장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현실에서 행위가 어떻게 적용될지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칸트는 보편적 법칙만을 ㉣ 주장했기 때문에 개별 상황의 특수성 혹은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이 무시된다고 비판했다. 헤겔은 사회가 따를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칸트의 ‘도덕성’으로의 도덕과 달리 ‘윤리성’으로서의 도덕을 주장한다. 헤겔에게 도덕 법칙은 가변하는 구체적 개인의 맥락 하에 실현 가능해야 비로소 도덕 법칙으로 성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은 칸트가 형식에 집착했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게 될 수 없게 되었다는 헤겔의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헤겔과 달리 도덕의 기준을 다르게 제시하며 칸트를 비판한다.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의 기준으로 오직 결과에 기반한 사회 전체의 공익을 ㉤ 제시한다. 즉 맥락에 의해 변화하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측면에서도 선택의 동기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익이 증진되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에 따르면 결과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진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절제된 욕망에 기반한 규칙을 이행할 때 비로소 자유의지가 실현된다.
  - ③ 헤겔에 따르면 보편적 법칙의 확립이 이행돼야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헤겔에 따르면 개인의 현실 속에서 성립 가능한 도덕 법칙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 ⑤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 기준이 결과에 기반한다면 행위는 모두 도덕적 행동이 된다.

2. 윗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ㅁ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ㄱ. 욕망을 배제한 개인이 확립한 규칙을 이행할 때 비로소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
- ㄴ. 도덕적 기준은 맥락을 고려해야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
- ㄷ. 결과에 기반한 도덕적 기준이야말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게 한다.
- ㄹ. 절대적인 도덕적 규칙을 이행해야 비로소 자유가 성립할 수 있다.
- ㅁ.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존재한다.

- ① ㄱ은 칸트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② ㄴ은 헤겔과 공리주의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③ ㄷ은 헤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공리주의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④ ㄹ은 칸트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⑤ ㅁ은 칸트와 공리주의의 입장에 상충하지 않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기준을 확립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보편적 기준은 인간의 욕망을 반드시 반영할 수밖에 없어. 욕망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편적 욕망을 반영한 기준이야말로 참된 보편적 기준이야.

**을:** 그렇지 않아. 일단 욕망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속성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의 '종류'는 무한하기 때문이야. 그렇기에 보편적 기준에 욕망이 반영될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올바른 보편적 기준으로 오직 결과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결과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비로소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지.

- ①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②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욕망을 배제하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③ 헤겔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이 보유하는 욕망을 반영한 보편적 기준에 대한 갑의 입장은 옳겠군.
- ④ 헤겔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 증진을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⑤ 공리주의의 견해에 의하면, 선택의 결과에 기반한 보편적 기준에 대한 을의 입장은 옳겠군.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 : 대립(對立)하게
- ② ㉡ : 설정(設定)한
- ③ ㉢ : 비난(非難)한다
- ④ ㉣ : 설득(說得)했기
- ⑤ ㉤ : 감정(鑑定)한다